

제/언

# 하반기 양돈장 경영악화 심각하다!



김형린 대표  
맥스피드

## 1. 서론

한국 양돈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8개월간 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이 기간중의 전국 평균돈가는 2002년도 생체 kg당 생산비인 1,548원(지육 기준 2,350원)에 미달하는 1,494원(지육 기준 2,246원)에 불과 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 출하체중인 107.5kg, 1두당 5,805원의 순손실로 계산된다.

그러나 자가노동비 이외의 경영주 인출금(예:생활비)을 감안한다면 자금흐름상의 실제 체감생산비는 1,650원(2,5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두당 16,500원의 적자를 의미하며 모든 150두 일관생산 농장의 MSY(모돈당연간출하두수)를 17두로 감안한다면, 8개월간 2,8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막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은 양돈사업은 불과 3개월(2003년, 5~7월)의 복구기간을 거쳐, 이번이 없는 한 내년 3~4월까지 심각한 경영악화, 즉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양돈의 현안 문제를 되짚어 보고 불황기 양돈 경영관리의 핵심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 양돈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8개월간  
 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은 양돈사업은 불과 3개월(2003년, 5~7월)의  
 복구기간을 거쳐, 이번이 없는 한 내년 3~4월까지 심각한 경영악화,  
 즉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견된다.

## 2. 과제(1) : 사육두수 감축과 돈육 부위별 소비 불균형 해소

한국의 양돈산업은 인구 및 소득 수준의 증가와 대일 돈육 수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호재를 타고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한 결과 900만두를 넘어 금년 9월 사상 초유의 950만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돈육 부위별 수출

구 분	96축기연	
	중량(kg)	%
생체	110.0	
지육	79.2	72.0%
정육	52.1	47.4%
후지	13.2	12.0%
전지	9.2	8.4%
삼겹	9.1	8.3%
등심	7.2	6.5%
목심	4.8	4.4%
사태	3.5	3.2%
갈비	3.0	2.7%
안심	1.1	1.0%
갈매기	0.3	0.3%
잡육	0.7	0.6%
지육부산물	27.1	24.6%

1980년 이후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이 4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없을 정도로 양돈업은 호황 속에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구제역과 콜레라”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과잉 생산구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도축두수는 최근 3년간 연 7%(매년 약100만두)의 증가를 보여온 반면, 국내 돈육 소비는 2~3%대의 성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구조의 해소를 위하여는 정확한 부위별 수요 예측에 따른 생산량을 예측·조절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급 조절시스템”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대일 수출 중단 이후 양돈업을 유지할 수 있는 내수위주의 적정 사육 두수는 850만두 수준으로 보인다. 향후 수년간의 대일 수출 중단, 시중경기의 불확실성, 삼겹살을 위주로 한 인기부위에 편중된 소비로 인하여 심한 경영압박

을 받고 있는 양돈농가의 파트너(부분 육가공 및 유통업자)를 감안할 때, 양돈인이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약 7% 수준의 규모 감축”이 최우선 과제를 강조한다.

〈표 1〉의 돈육 부위별 수출과 같이 돼지 한마리를 도축하면 삼겹살은 9kg 내외, 목살은 4kg 정도로 각각 17%, 9%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인기부 위만을 고려한다면 1,200만두 정도가 사육되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육질의 신선한 돼지고기, 즉 냉장돈육으로의 소비 형태가 전환된 결과 이러한 소비 편중구조가 비인기·저가 부위 (등심·안심·후지)의 체화 문제를 야기시켜 육가공업체의 경영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심각한 변화 중의 하나는 “목살의 수요 감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일 수출 중단과 불황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물  
태지 고기(PSE 돈육)의 발생  
증가 와 맞물린 육질 저하 현  
상에 따른 소비자 입맛의 불  
신 판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  
다.

육가공업체와 양돈가 모두  
가 수익 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는 모든수 감축을 통한  
사육두수 감축과 아울러 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신제품  
이나 신요리법 개발도 중요하  
지만 우선적으로 육질을 향  
상시켜야 한다.

### 3. 과제(2) : 위생적 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의 공급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구제역과 돈콜레라(돈열)의  
발생·대처 상황을 지켜본 소  
비자는 우선 소비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축산물  
의 항생제 잔류로 인한 인체  
용 약제 내성의 발현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  
다. 1990년대 말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급속  
히 파급되고 있는 성장촉진용  
항생제(AGPs : Antibiotic  
Growth Promoters)의 사용제  
한과 동물복지의 신 기류는  
결국 안전한 축산물을 확보하



▲이번에 다시 찾아올 양돈불황은 양돈장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이 틀림없다.

고자 하는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으  
로 해석된다.

당초 지난해의 급격한 모든  
수의 증가에 따른 금년도 출  
하두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성수기의 돈가는 2,700원선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비관적  
인 예측이 난무했었던과는 반  
대로, 출하돈 의 예상외 부족  
과 고가의 소고기 소비대체,  
재고돈육 소비대체로 인하여  
그래도 산지가격이 예상외로  
형성되고 있다.

작년의 하절기 이상 기상과  
많은 인공수정젼타로 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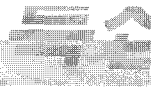
오염된 정액 공급에 따른 수  
태율 저하, 구제역과 돈열로  
인한 살처분, 유난히 발생건  
수가 증가했던 PED(유행성  
바이러스성 설사병)도 문제였  
지만 최근들어 유난히 전국적  
으로 심각하게 발생을 보이는  
PMWS (이유후 전신성소모  
성 위축증후군)도 특특히 출  
하두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아직까지도 양돈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호흡기질  
병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같은 질병의 문제는 소위  
“밀사병”으로, 돼지 생리에 맞

<표 2> 2002년도 비육돈 생체 kg당 생산비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료비	가축비 (자돈생산비)	인건비	방역치료비	수도광열비	자가노력비 및 이자	계
51.5%	29.4%	2.7%	2.6%	1.1%	6.2%	100%
798원	455.5원	41원	40원	17원	96원	1,548원



는 쾌적한 환경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출하두수(매출액)만을 늘리고자 하는 경영주의 “육심과다증후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무리하게 필요 이상의 고영양 사료와 막대한 투약비를 투입하여 육질을 저하시키고 생산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품종 고유의 유전적인 성장곡선에 맞게 성장할 때 정상적인 체조성

에 투입된 인건비는 가축비에 포함되어 있고 비육돈 관리에만 투입된 것으로 실제로 일관생산 농장의 경영 분석을 해보면 출하 1두당 11,000~20,000원 수준이다. 물론 인건비는 고정비이므로 출하두수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사육시설의 여유(수세·소독·건조)는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의

질의 노동력이 점차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경영주의 농장 집중 도가 곧 경쟁력(생산성과 수익성)을 좌우하게 되었다. 아직도 종업원에게 농장을 맡겨둔 채, 밖으로 나돌며 실제 생산관리에 전력투구하지 않는 회장님 같은 경영주는 결코 이 위기상황을 견뎌 내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양질의 돼지고기도 생산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비인기 부위 적체 해소를 보다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양돈업자가 오로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분뇨처리 및 안정적인 출하를 위한 육가공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간절히 요구된다. 또한 돈육 생산자는 스스로 사육두수를 감축하여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영양 재분배)에 따른 육질이 보장되며,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생한 돼지로 부터 좋은 육질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모돈수 7%를 감축할 것을 제의한다.

#### 4. 과제(3) : 경영주의 집중도 제고

〈표 2〉의 인건비는 번식돈

모돈을 수용하다보니 당연히 밀사를 하게되고 질병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안는다.

또한 아무리 불황이라도 년 36~40%의 후보돈 갱신을 통하여 적정 모돈산차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단 11월부터 3월까지의 가능한 외부로 부터의 후보돈 도입을 자제함이 저온성 질환이 문제되는 우리 실정에 유리할 것이다.

문제는 “인력의 질”인데 양

#### 5. 결론

이번에 다시 찾아올 양돈불황은 양돈장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이 틀림없다. 대한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비인기 부위 적체 해소를 보다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양돈업자가 오로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분뇨처리 및 안정적인 출하를 위한 육가공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간절히 요구된다. 또한 돈육 생산자는 스스로 사육두수를 감축하여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양돈**